

제주도 신당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양 정 철¹⁾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에서 오랜 시절 동안 전해오고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는 독특한 문화인 당 신앙 문화를 연구하고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당 신앙 문화는 제주민의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삶이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주 지역의 전통적인 독특한 문화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게 지역민의 종교로서 생활세계를 지배해 왔으며, 지금도 육지부의 어떤 지역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신앙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의 넓이나 인구 규모로 보아 큰 지역은 아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에서 신앙 민이 다니고 있는 당의 수는 현재 368여 곳이 되며(제주신당조사, 2009a: 512-517), 인구규모가 6만 정도에 지나지 않던 18세기 초, 당시 제주도내에 있던 신당의 수는 130개가 넘었다.(제주도 신당이야기, 2008a: 257) 그리고 지금은 당이 없는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이 마을에는 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주시 지역에 22개, 서귀포 지역에 10개소가 폐당이 되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독특하고 전통적인 문화인 당 신앙 문화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해녀들의 물질을 나갈 때와 집안의 평안함과 가족의 건강 등 척박한 제주 지역사람들의 삶의 안식처 같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은 제주 지역민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사라져가는 신당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신당을 정비하고 홍보하여 독특한 지역민의 삶과 애환이 가득한 이곳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했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1. 제주 당 신앙문화 관련 선행연구

문헌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신당에 무속을 주관하는 심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학자

1)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들은 다음과 같다. 신당의 무속을 주관하는 심방 관련 조상신 본풀이를 재해석한, 강소전(2010). 칠성 본풀이와 토산 여드레 본풀이 뱀을 주제로 연구한, 양현숙(2006). 당 본풀이 계보와 지역적인 차이를 연구한, 김현선(2005). 시대적인 당 본풀이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정진희(1999). 강정식(2002). 전주희(2007). 제주도 설화를 중심으로 당 본풀이를 연구한, 박종국(2003). 김관오(2004). 김녕리 지역의 당신앙 및 잠수굿을 연구한, 정루시아(1999). 강소전(2005). 제주 무속신앙에 나타난 돌에 대한 연구를 재해석한, 강연실(2008). 이영식(2005)이 있었으며 이는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1> 제주 신당의 이론적인 선행연구 사례

| 구분 | 내 용 | 저자 | 년도 |
|-------|---|------|-------|
| 당신본풀이 |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 정진희 | 1999년 |
| | 제주도 당신앙 연구 | 정루시아 | 1999년 |
| |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의 연구 | 강정식 | 2002년 |
| |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 김현선 | 2005년 |
| | 제주도 잠수굿 연구 | 강소전 | 2005년 |
| | 제주도 뱀신화연구(칠성본풀이, 토산여드레당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적 해석 | 양현숙 | 2006년 |
| |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증여관계 연구 | 전주희 | 2007년 |
| | 심방 관련 조상신 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 강소전 | 2010년 |
| 무속신화 |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의 의미 연구 | 박종국 | 2003년 |
| | 역사/문화 테마파크 조성계획 적용에 관한 연구 (제주 무속신화를 중심으로) | 김관오 | 2004년 |
| 제주돌문화 | 제주도 무속신앙 대상 등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 이영식 | 2005년 |
| |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방안 | 강연실 | 2008년 |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위에서 나타나듯이 학계에서는 제주 신당에 대해 무속신화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신당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연구한 독립적인 글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제주 신당이 지닌 문화적인 가치를 재조명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주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신사, 지장보살의 활용가치를 보면 충분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된다.

2. 사례지역 신당 현황

구좌읍 지역의 신당 현황을 살펴보면 총 40개의 신당 중 멸실은 6곳, 폐당은 3곳, 정상은 31개로 나타나고 있다. 멸실된 신당은 관리소홀과 관광개발 및 도로확장 등으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2-2> 구좌읍 지역의 신당조사

| 읍·면 | 마을 | 신당명 | 상태 | | |
|-----|-----|------------------------|----|----|----|
| | | | 멸실 | 폐당 | 정상 |
| 구좌읍 | 동북리 | 동북리(본향)본향 굴묵밭할망당 | | | * |
| | 김녕리 | 김녕 본향 사장빌레 큰당 | | | * |
| | | 동김녕 케네깃당 | | | * |
| | | 동김녕리 성세깃 당 | | | * |
| | | 서김녕(남홀동)본향 노모리동산 일케당 | | | * |
| | | 김녕 한개당 | * | | |
| | | 김녕 세개당 | * | | |
| | | 서김녕리 서문하르방당(남당, 미륵당) | | | * |
| | 월정리 | 월정 본향 서당머체 큰당 | * | | |
| | | 월정리 서당 | | | * |
| | | 월정리 배롱개 해신당 | | | * |
| | 행원리 | 행원리 본향 큰당 | | | * |
| | | 행원리 남당 | | | * |
| | | 행원리 오분작할망당 | * | | |
| | 한동리 | 한동 본향 괴로본산국당(괴당) | | | * |
| | | 한동(서하동)망애물 해신당(남당, 개당) | | | * |
| | 평대리 | 평대 본향 신선백관 하르방당 | | | * |
| | | 평대(서동)본향 수대깃당 | | | * |
| | | 평대(동동)수대깃당 | | | * |
| | | 평대 갯마리 일케당 | | | * |
| | 세화리 | 세화리 본향 천자또 산신당 | | | * |
| | | 세화리 그늘곳 일케당 | | | * |
| | | 세화리 갯것할망당(돈깃당) | | | * |
| | 상도리 | 상도리 본향 막음질 일케할망당 | | | * |
| | 하도리 | 본향 삼심불도할망당 | | | * |
| | | 각시당 | | | * |
| | | 남당 | | | * |
| | | 난도리 할망당 | | * | |
| | | 일뤼당 | * | | |
| | | 면수동 본향 여씨불도 할망당 | * | | |

| 읍·면 | 마을 | 신당명 | 상태 | | |
|-----|-----|-----------------------|----|----|----|
| | | | 멸실 | 폐당 | 정상 |
| 구좌읍 | 종달리 | 본향 오막개당 | | | * |
| | | 조개왓 틀목 일뤼당 | | | * |
| | | 생개납 돈짓당 | | | * |
| | 송당리 | 본향 웃송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 | | * |
| | | 상덕천 체오름 일뤼당 | | | * |
| | | 상덕천 체오름 산신당 | | | * |
| | | 본향 알손당 고부니모루 소천국 하르방당 | | * | |
| | 덕천리 | 하덕천리(거멸)본향 거멸 문국성 산신당 | | | * |
| | | 하덕천리 웃산전 사라홀당 | | | * |
| | | 덕천 된밭 사라홀당 | * | | |
| 소개 | | 40개 | 6 | 3 | 31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당조사 2009년

Ⅲ. 실증분석

1. 면접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당 신앙 문화를 그 지역의 관광자원화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유형을 파악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알아보고자 2011년 5월 13일~2011년 6월 8일까지 김녕리에 있는 5개 신당을 대상으로 63명(제일교포) 및 일본인 1명을 포함 6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1)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대인면접법이다.

2. 분석결과

응답자는 남성 26명, 여성 38명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 면접대상표

| 지역구분 | 남(명) | 여(명) | 연령(대) | 직업 | 총계(명) |
|--------------|------|-------|-------|-----------|---------|
| 김녕리 주민 | | 1 | 30 | 가사 | 남1, 여18 |
| | 1 | 1 | 40 | 농사 | |
| | | 8 | 50 | 해녀, 농사 | |
| | | 6 | 60 | 해녀, 농사 | |
| | | 2 | 70 | 농사 | |
| 교포 | 2 | 2 | 70 | 자영업 | 남2, 여2 |
| 서울 | 1 | 1 | 30 | 회사원, 가사 | 남2, 여2 |
| | 1 | 1 | 40 | 회사원, 가사 | |
| 경기도 | 1 | 1 | 30 | 회사원 | 남7, 여7 |
| | 6 | 6 | 40 | 자영업, 회사원 | |
| 울산 | 1 | | 40 | 회사원 | 남1 |
| 강원도 | 2 | 3 | 20 | 취업준비, 자영업 | 남3, 여4 |
| | 1 | 1 | 30 | | |
| 대구 | 1 | 1 | 30 | 회사원 | 남1, 여1 |
| 부산 | 1 | 1 | 20 | 회사원, 취업준비 | 남2, 여2 |
| | 1 | 1 | 60 | 자영업 | |
| 전라도 | 7 | 1 | 20 | 취업준비, 회사원 | 남7, 여1 |
| 일본인 | | 1 | 30 | 회사원 | 여1 |
| 총계 | 26 | 38 | | | |
| 연령 구분 | | | | | |
| 20대 | 10 | 5 | 15명 | | |
| 30대 | 4 | 6 | 10명 | | |
| 40대 | 9 | 8 | 17명 | | |
| 50대 | | 8 | 8명 | | |
| 60대 | 1 | 7 | 8명 | | |
| 70대 | 2 | 4 | 6명 | | |
| 김녕리 지역 당별 구분 | | | | | |
| 성세기당 | | | | | |
| 지역 | 남(명) | 연령(대) | 여(명) | 연령(대) | 비고 |
| 부산 | 1 | 20 | 1 | 20 | |
| 전라도 | 7 | 20 | 1 | 20 | |
| 서울 | 1 | 30 | 1 | 30 | |
| 경기도 | 6 | 40 | 6 | 40 | |
| 김녕주민 | | 50 | 4 | 50 | |
| | | 60 | 3 | 60 | |
| 총계 | 15 | | 16 | | 31 |

| 지역구분 | 남(명) | 여(명) | 연령(대) | 직업 | 총계(명) |
|----------------------------|------|------|-------|----|-------|
| 본향 사장빌레 큰당 | | | | | |
| 강원도 | 2 | 20 | 3 | 20 | |
| 대구 | 1 | 30 | 1 | 30 | |
| 부산 | 1 | 60 | 1 | 60 | |
| 김녕주민 | | 70 | 2 | 70 | |
| 총계 | 4 | | 7 | | 11 |
| 퀘네깃당 | | | | | |
| 김녕주민 | | 50 | 3 | 50 | |
| | | 60 | 3 | 60 | |
| 제일교포 | 2 | 70 | 2 | 70 | |
| 총계 | 2 | | 8 | | 10 |
| 본향 노모리동산 일뤼당 | | | | | |
| 김녕주민 | | 40 | 1 | 40 | |
| 서울 | 1 | 40 | 1 | 40 | |
| 울산 | 1 | 40 | | 40 | |
| 김녕주민 | 1 | 50 | 1 | 50 | |
| 총계 | 3 | | 3 | | 6 |
| 서문하르방당 | | | | | |
| 김녕주민 | | 30 | 1 | 30 | |
| 경기도 | 1 | 30 | 1 | 30 | |
| 강원도 | 1 | 30 | 1 | 30 | |
| 총계 | 2 | | 3 | | 5 |
| 일본인 나오상(동경동 우에노 거주) 30대 후반 | | | | | |

자료 : 면접자료 2011.05.01~2011.06.08

총 면접인원 일본인 포함 6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결과 제주 신당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반면 찾아오는 지역 주민은 재차를 행하고 신당 청소를 위해 방문하는 목적이 높은 반면 육지부 인원을 조사결과 신당의 위치 및 방문 목적은 예전에 해녀들을 통하여 들었거나, 회사에 같은 동료들에 의해서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제일교포는 고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차를 지내거나 소원을 빌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온 올레꾼 12명은 제주신당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또다시 방문을 하겠다는 결론은 얻게 되었다. 신당을 찾은 목적은 관광도 있었지만, 소원 성취, 집안 무사안녕과 자식들을 위한 방문이 대부분이었으며, 젊은 20대 층에서는 제주역사를 공부하다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1) 제주 신당이 관광자원화 가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관광자원화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도가 필요하며, 지역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관광자원화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주민 남 1명, 여자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여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남 1명, 여 8명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여자 응답자 10명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대를 하는 응답자는 연령이 높은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이 낮은 분들은 관광자원화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45명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결과 관광자원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명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5명의 인원도 관광자원화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관광자원화가 된다면 홍보를 통하여 다시 찾아오겠다는 의견이 35명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10명의 인원은 문화적인 차이 및 해설사가 없는 가운데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신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신당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가지는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2) 신당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발전의 관계

신당은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삶의 역사로서 신당을 문화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면접대상자는 64명 중 60명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 4명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결과 일본에서도 신사나 오조기상, 고양이 상 등 소원과 무사안녕을 비는 곳이 많이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그런 곳이 있다면, 일본인들은 한번 이 지역에 와서 신당에 소원을 담아 빌고 가면 주기적인 방문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면접 소견을 보이고 있다. 신당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

3)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5명과 홈페이지를 통한 문화관광상품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0명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0명 그리고 신당을 정비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0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김녕지역을 대상으로 신당에 대한 관광자원화 가치를 판단하여 조사해본 결과 관광자원화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하지만 김녕리에 위치해 있는 7개의 당 중 2개는 훼손되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그나마 5개 당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 3개 당은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으며, 1개 당은 지역주민만 출입을 허가하는 당이 있었다. 그리고 1개 당은 찾기가 힘들어 농지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당이 있었다. 신당의 보존의 한계성은 신당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읍지부나 특정종교인에게 매각을 할 경우 신당의 훼손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었다. 또한 도로정비로 인하여 훼손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신당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신당을 보존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며, 신당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당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 정기적 정비 지원 제도화

제주신당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에서 정기적인 지원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0년을 전후해서 4개 시군에 마을 포제를 봉행하는 마을에 한하여 10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다. 또한 구좌읍 덕천리에서는 2001년에 마을 공동자금 400만원을 들여 마을 본향당인 금산당에 비가림 시설 및 돌담시설을 정비하였지만 행정에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각 마을 포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매년 마을 포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봉행장소는 신성시 되는 곳으로 마을에서 별도의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각 마을 리사무소와 마을 자생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신당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신당의 역사적 가치를 기록하고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입로 정비 및 휴식공간 마련, 신당에 대한 입간판 설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문화지킴이 운동 활성화

신당을 무속신앙으로 보는 것보다는 신당의 역사성에 중점을 두어 신당이 가지는 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신당은 마을의 설촌유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을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며, 지역에 있는 신당의 역사를 교육하여 문화해설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문화관광자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추세는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0년 700만명 이상이 관광객이 방문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별관광객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만큼 개별관광객의 위치가 단체관광객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관광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전에는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찾고 있으며, 잘 알려진 관광지보다는 문화체험관광 위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녹색관광과 농촌테마관광 등 농촌을 살리자는 바람이 불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연계시켜 신당을 홍보함으로써 인하여 전통적 마을 구조에서 공동체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본향당을 비롯하여 뗏돌, 포제단 등을 홍보하고 제주사람들의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 신당이라는 것으로 홍보하여 농촌마을의 관광자원, 제주 전통문화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작업이 필요하다.

1) 제주도 신당에 대한 행정관청에 이해의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독특하고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신당을 관리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를 인식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당은 대부분 마을에서 신성시 되는 곳이기도 하나 마을 올레길과 겹쳐있는 곳이 많다. 이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올레 방문객이 30% 이상 증가하여 2010년 100만명 이상의 올레꾼이 방문하여 올레를 탐방하고 느낌의 미학을 경험하고 있다. 각 올레 구간에 있는 특색 있는 신당을 정비하여 마을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홍보가 중요하다. 올레지역의 신당의 홍보책자를 올레지도와 연결하여 공항 및 항만에 비치하여 신당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당을 답사할 수 있는 신당의 위치도, 홈페이지 및 각 읍면사무소 및 관광안내소에 배치를 하여 제주신당을 홍보하고 신당에는 해설판을 설치하여 신당의 설치 배경, 소원의 종류, 재차의 행사 등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노력이 필요하다.

2) 제주특별자치도와 학계와 마을 주민의 공동의 노력 필요

지역마을에 있는 신당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행정관청, 지역주민의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에 대한 신당의 중요성 및 유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신당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당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신전을 활용하여 제우스, 포세이돈 또한 트로이목마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신사 및 지장보살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제주는 만 팔천 신에 대한 전반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계와 행정, 지역주민을 필두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재해석이 필요하다.

3) 제주신당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작업 필요

제주 신당에 대한 이야기는 재창조 되어야 한다. 신성시 되는 곳이니만큼 보존하고 훼손이 안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허나 제주도의 문화적인 자원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재창조함으로써 경제적인 파급효과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 로마신화가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 모델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미 학습을 통하여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접하며 친숙한 문화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신화에서 보이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오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신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존·전승해야 할 문화가 그 관광대상이 되어준다. 웅장한 신전을 감상하며 관광일정을 마치는 동안 거기에서 파생되는 막대한 경제수입을 얻고 있다. 또한 로마 판테온 신전인 경우 일평균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이미지 각인 작업이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주도의 경우 만 팔천 신의 신화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한 신화의 재구성을 시행해야 한다. 제주의 신화적인 모습에 현대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신화이야기를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지역마을에 있는 신당의 이야기는 이런 작업에 있어 매우 좋은 소재가 된다. 김녕리의 경우 풍요, 잉태, 만선, 병치료, 집안의 화목 등을 기원하는 신당들이 있다. 기존 이야기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면, 풍요는 부를 희망하는, 잉태는 자녀탄생을 바라는, 병치료는 주변 환자의 쾌차를 기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가지는 관광적 가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신화적 이야기들은 각 관광가치를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시켜 이를 통한 홍보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각색된 신화이야기, 전설이야기는 다양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촉매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신화는 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는 캐릭터산업에서 강력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지금의 제주는 돌하루방, 굴, 농수산물 등 단조로운 관광판매상품이 전부지만,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하여 신당마다 고유의 캐릭터를 생산해낸다면 다양한 가치의 수많은 캐릭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재창조된 신당 신화를 통해 지역적 특산물을 교묘하게 끼워 넣음으로써 신들이 먹었던 음식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재활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인 우도인 경우 땅콩을 먹거리로 하는 음식, 구좌인 경우 당근, 성산인 경우 해산물, 등 각 지역의 특산물을 신당에 바치고 신과 함께 공유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꼭 한번은 먹어야 될 음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한편의 잘짜여진 시나리오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당신화는 영상산업과 더불어 영화, 애니메이션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우리네 제주신당 이야기를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발전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영화 중 그리스 로마신화나 그 고전인 오딧세이 등의 전설 등에서 그 모티브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기반제조시설이 미비한 제주지역에서 지역인재를 활용한 문화컨텐츠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기초가 되어 줄 수 있다. 신당신화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그 작업을 했던 인원들이 시나리오 작가로, 신당캐릭터를 생산해냈던 이들은 애니메이션 미술작업군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문화산업을 넘어, 생산산업, 영상산업, 지역 소득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당의 위치가 각 지역별로 고루 분포하며, 제주올레길의 범위에 산재해 있는 것이 많은 만큼, 이와 잘 연관 짓는 신당신화를 각 올레코스에 고유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올레길로 통칭되는 관광자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아울러, 이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개발되는 산책코스와는 차별되는 제주만의 상품으로 어느 지역도 모방이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V. 참고문헌

<학위논문 및 학술자료>

1. 강소전, 2010, 심방관련 조상신본풀이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36호(pp147-184).
2. 강소전, 2005, 제주도 잠수굿 연구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동김녕리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강정식, 200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강연실, 2008,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화 방안 : 돌문화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현선, 2005,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 민속학회, 제 29호(pp243-282),
6. 김관오, 2004, 역사·문화 테마파크 조성계획 적용에 관한 연구 : 제주무속신화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종국, 2003,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거식성의 의미 연구 : 신화, 당본풀이, 전설을 중심으로.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신보미, 2009,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특성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양현숙, 2006, 제주도 뱀신화 연구(칠성본풀이, 토산여드렛당 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적 해석, 서강대학교 교육원, 석사학위논문.
10. 전주희, 2007,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증여 관계 연구 - 독립된 재차를 지닌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 정루시아, 1999, 제주도 당신앙 연구 : 구좌읍 김녕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문서적>

1. 김정숙, 2003,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각.
2. 김종은, 이승곤 공저, 2008, 관광지리학, 형설.
3. 김미영, 2002, 일본의 집과 마을의 민속학, 민속원.
4. 김사현, 1985, 관광경제학, 경영문화원.
5. 김재민, 2001, 관광자원 개발론, 대왕사.
6. 박종찬, 김성동 공저, 2006, 관광자원론, 남두도서.
7. 이장춘, 1998, 최신관광자원학, 대왕사
8. 이해미, 1999, 관광개발론, 대왕사.
9. 이봉석, 정석중, 심인보, 이미혜, 김창수, 송재호 공저, 2001, 관광자원론, 대왕사.
10. 유영준, 송재일, 임진홍 공저, 2005, 관광상품 기획론, 대왕사.
11.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공저, 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12.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 서사무가, 역락.
13. 정명숙, 이종관, 배일섭, 이상복, 박충선, 공저, 1998, 사회과학조사방법론(통계분석기법 및 논문작성법 수록), 대구대학교 출판부.
14. 하순애, 2008, 제주도 신당이야기, 제주대학교 출판부.
15. 제주특별자치도, 2008, 2009, 제주신당조사, 제주전통문화연구소.
16. 한국관광공사, 1996,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방안.